

社說

‘국민은 어떠한 개인보다 총명하다’

제14대 총선에 부처

내일은 투표일이다.

향후 4년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말해 줄 선장을 뽑는 날이다. 바야흐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로 내일인 것이다. 이번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여러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노태우 정권에 대한 6공화국을 평가하는 날이요, 삼당합당으로 여소야대를 하루아침에 아소여대로 만든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요, 한국경제를 패권으로 몰고있는 경제정책의 집권자인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요, 무책임하고 파행한 일삼은 13대국회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는 날인 것이다. 내일의 선택은 분명 유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내일이 가고 또 내일이 오면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연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희망찬 4월이 되느냐, 아니면 잔인한 4월이 되느냐가 명확해진다. 아니 앞으로 4년동안 이땅의 민초들의 삶이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다.

해방후 민주주의의 대장정이 시작된 이래로 이 땅의 정치는 이변과 변혁으로 점철된 집권과 야권의 가시밭길이었다. 착하다 착한 이땅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던 6공화국은 좌절과 실망의 기억들이 많았던게 사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것이 바로 민초들이 아니었던가.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고 염원하는 민초들을 실망시킨 것은 언제나 독재를 일삼은 정치권력이 아니었던가.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해보자.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한다는 가치적 원리에 소수를 보호하는 다수결의 의회제도의 기구적원리로 토론·설득·참가·저항의 방법적원리가 일체된 삶의 양식으로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한다. 개인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통치하고 통치받는 체계방식인 것이다. 확고한 삼권분립에 의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조화롭고 균형있게 국가와 구성원의 복리후진에 노력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다. 의회제도를 두어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대의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대중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부패 그리고 돈으로 얼룩진 타락선거의 전횡이 바로 이땅의 선거 풍토가 아니었던가. 후보자 1천50명중에서 국회의원 2백37명을 뽑는 6공화국의 과정을 과연 깨끗하였는가의 의구심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뿌려진 어마어마한 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1조원이 넘는 화폐의 파다지출로 인한 경제의 패배는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민초들의 생활고를 압박할 것은 물론이다. 막판까지 부동표를 잡기위한 각종당과 후보자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초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무서운 민중의 힘을 보였던 것이 이땅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안다. 정치가 아무리 이합집산의 장이라 고는 하나 불교보자는 식의 구태연한 자책은 지치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자신의 과오는 반성하지도 않고 오직 상대방을 비난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을 보면 어린이들이 보기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성숙한 민의가 이를 수용할리가 있겠는가. 지난번 권력의 회 선거율이 50%도 못미쳤는데 이번에는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민간단체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지 않은

리라는 여론이 있는 것을 보면 정치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겠다. 본사의 여론조사에서도 63%의 학우들이 투표의사를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물론 투정은 열여섯이 하겠지만 패배한 정치불신의 극복은 투표율을 떠나서 심각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허무주의가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고 나타난 고도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력자들과 이에 관승한 가진자들이 냉소주의를 조장, 선거혁명의 원인으로 삼으려는 민주국민들의 패러인 열망과 노력을 왜곡하려는 차원에서 정치놀이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이땅의 정치권력은 민초들에게 회갈을 느끼게하는 용어법,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반대파들을 분쇄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는 용어법들을 애지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수뇌부들은 어쩌면 투표일이 광의회투표처럼 낯가림을 비라는지도 모를 것이다. 개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을 마비시키는 공포정치의 차원이 5공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이는 지난 4년동안의 구속자의 수에서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음을 본다.

선거결과를 투표일이 닮았다 한다. 이는 그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사회가 합리적이거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수준높은 정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한 나라의 정치적 권위는 그 근거가 한사람의 특정 지배자에 의해 연원되었거나, 그 권위가 한사람의 수중에 남아 있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국민에 의해 정치적 권위가 연원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국민의 수중에 남아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은 어떠한 개인보다 총명하며 전국민을 끝까지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6공화국 정권은 새겨야 할 것이다. 권력의 무지비와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이번 선거에서 모든 민초들은 보여줄 것을 굳게 믿는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함은 당위의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투표권을 가진다면, 투표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세심하게 주의하고 자 한다.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와 이익이 사회의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에 더욱 내일의 선거는 억압과 굴레의 삶이 계속 되게 하느냐, 새로운 민주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내느냐의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민초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날인 셈이다.

2-30대의 유권자가 전체의 57.2%나 되는 1천6백만명이라는 청년은 나라의 대들보임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백만이나 되는 대학의 청년들도 있음을 안다.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할때 분명히 일어나 난관을 극복하였던 계층이 바로 청년이 아니었던가. 방관만하는 구경꾼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일당 몇만원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양심을 저버릴 우리 대학인은 없을 줄 안다. 대학인은 항상 사회의 지표인 것을 높은 긍지로 삼아왔음을 다시금 상기하고자 한다. 참자유와 평화와 함께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길 새삼 바라는 것이다.

내일은 분명 투표하는 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몇년간 88올림픽을 전후한 시기 3저조황속에서 사상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등 경제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재작년 90년부터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에따라 우리의 경제는 다시금 약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해 사회전반에 걸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장 주류로 이루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과소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신문이나 그외의 매체에서는 이를두고 '소득수준 5년 불에 소비수준은 2년불'이라는등의 구호가 나오고있으며 여러가지 캠페인들을 통하여 이의 자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있다.

그러나 요즘의 신문들을 보면 이러한 자신들의 논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고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는 다름아닌 신문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알수있다. 보통 광고의 비율이 60%를 넘고있는 각종 스포츠 신문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각종 중앙 일간지들 역시 총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있다. 우리가 의식있는 진보적 일간지로 흔히 꼽히고있는 한겨레신문에서조차 전면광고를 비롯해 전체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것을 보면 이러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닐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물론 광고지체를 나

구매투하는 것이 상품광고 속성임을 볼 때, 신문에서의 과소비 추방운동과, 상품광고의 증가는 서로 모순이 아닐수가 없다.



물론 이에대해 신문사측에서는 제작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문값으로 인해 광고값이 는 신문제작이 불가능하다 말하고있으나, 얼마전 '시사저널'에

사를 비롯한 여타언론사들은 그들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의 공익에 그들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신문지면에 광고의 홍수가 일고 또한 이러한일이 사회공익보다는 신문의 증면과 발행부수 경쟁이라는 신문사 자체의 이익추구를위해 이루어진다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것에 다름아닐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중요하게 사회문제에 대한 과소비를 연일 기사화 하면서도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의 매체를 통하여 독자들의 구매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그들의 존재가치인 사회공익에 반하는 일로 독자들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없는 것이다.

우리의 신문들은 앞으로 사회공익이라는 자신들의 본분의 자를 통해 늘어가는 상품광고를 통한 무리한 '양적' 경쟁보다는 실로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의 수렴을 통한 독자를 위한 '질적' 경쟁을 시작해야 할것이다.

〈홍준호 기자〉

이윤추구에 매몰된 언론 광고

뿐만 단정지을수는 없다. 때로는 질 좋은 광고를 통해서 일반기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낼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그렇게 실리는 광고의 대부분이 상품광고라는 점이다. 상품광고의 주된목적은 상품을 선전하는것이고 이를통해 그의 구매욕구를 자극해 보는이로 하여금 상품을

실린 인쇄 되자마자 폐지처분되는 엄청난양의 신문과, 전체신문지면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비율이 심한경우 70%까지 된다고 하는 통계들보면 우리신문들은 실로 기사의 전달을 통한 공익의추구보다는 광고를 통한 이윤추구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신문

양심 저울질한 '돈'아르바이트

금권으로 얼룩진 대학생 선거운동

모인 청중의 1/3이 넘는 숫자이다. 게다가 그 운동원들의 대부분은 대학생 또래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런 상황은 요즘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중 하나일 뿐이다. 이들 대학생의 역할은 전담배포, 박수부대, 편지발송 등 다양하다. 이들이 각 유세장마다 운동원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대학생들은 적은 일당으로도 대단히 활동적인데다 유권자에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지지하는 바와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두둑한 일당을 많이 주는 쪽의 운동원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원봉사라는 간판에 불합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 이는 대학생의 역할은 전담배포, 박수부대, 편지발송 등 다양하다. 이들이 각 유세장마다 운동원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대학생들은 적은 일당으로도 대단히 활동적인데다 유권자에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앞의 영동포 2구의 경우 민주당이 동원한 운동원을 보면 이 지역에 있던 대학생조직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더해 이루어졌고, 민주당의 경우는 서울대총학생회장 출신의 후보에게 서울대·숙대 총학생회에서 자원봉사요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크게 보면 민주당은 '한대청년회'와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모임' 등으로 대학생조직을

참신한 이미지 노린 정당이 대학생 불법 동원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로써 대학이 바로서야

게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운동이 궁한 대학생들에게도 이처럼 쉽고 편한 돈벌이의 기회는 흔치 않을 것이다.

를 조장했던 '한대청년회'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모임'이 폭로된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 땅에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로서 커다란 부끄러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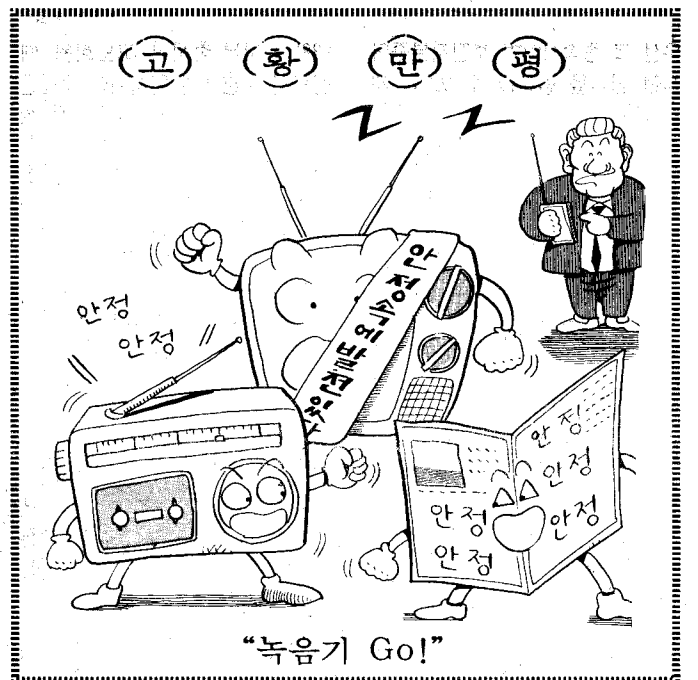
만들었고 민주당과 민중당·전국연합 등은 범민주후보로 추대된 후보를 중심으로 대학생 자원봉사가 활발한 반면, 국민당은 민주당과 같은 사조직을 꾸려 유세장마다 박수부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하지만 일부 자원봉사자를 빼면 이들 대다수가 정식이 아닌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물론, 선거운동에서 순수한 자원봉사·공정선거 운동과 단지 돈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들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얼마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신문보도에도 나타났듯이 대다수 대학생들은 정치적 소신에 의 한 운동원이 아닌 돈의 액수에 따라 선거운동의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금전에 의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 거짓과 불의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어온 노력에 막을 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번 선거에서 무관심을 극복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에

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몇 대에서 민주당에 대한 무분별한 선거 아르바이트운동은 자체에 대한 호소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감정, 금품살포,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으로 얼룩진 선거판을 깨끗으로 걸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학은 사회를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것 같다는 경감을 한다. 대학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밖에 없을을 말해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회의 거울이 되어야할 대학이 사회가 문헌 때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닦아낼 자들도 바로 대학생이다. 그리고 그 자화상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돈이든 해결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안주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경각으로, 바른 비판자로서 재자리에 서야하는 것이다. 지금 대학생들의 행동이 결국 후에 무거운 짐으로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송보영 기자〉



GoldStar

“컴퓨터를 안배워도 쓸 수 있어 참 편해요”

“소프트웨어를 보니 내가 쓸 것도 많구나”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당신도 결심하십시오”

“그럼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어요”

“386 컴퓨터와 고자원의 프로그램도 빠르게 처리하네요”

정말 쉬운 컴퓨터 — 금성가정용 컴퓨터 마이티 386H

●마우스버튼으로 간편하게 동작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386 컴퓨터로 성능이 우수합니다.
●정말 쉬운 가정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가정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파일관리자, 제어판, 인쇄관리자, 클립보드, 한글 MS-DOS 5.0, 설치관리자
보조프로그램	문서작성기, 펜트, 터미널, 메모장, 레코드, 카드 파일, 일정보, 계산기, 시계, PIF 편집기, 한글입력정보
게 임	카드놀이, 바둑판놀이

전사수첩, 연보양식, 봉단연필, 인사행동, 가족오락관, 예절생활, 취미생활.

전화번호부, 주요전화번호, 일일생활표, 세계시차, 단위환산, 음력절기, 가정예보, 기념일관리, 생활일람, 손수와 호정, 서적작성, 하나드림프로세서

가계부, 요리책과, 육아정보, 상차리기, 성격관리

일기쓰기, 수업시간표, 생활계획표, 키보드트레이너

자동차상식, 문해용, 도정비결, 손글씨, 요리요, 숫자맞추기, 등산, 낚시

가정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프로그램관리 컴퓨터교실

가정정보관리기

주요프로그램

재사용프로그램

이벤트프로그램

■ 본체 ● CPU : 120285X (16MHz) ● 기본 MEMORY : 2MB ● HDD : 40MB ● 비디오카드 : Super VGA ● 마우스 기본제공 ● 한글 MS-DOS 5.0 ● 한글입력도 3.0 ● Key Board Trainer ● 금성홈스트리트 ●

■ 가격 : 1,450,000(VAT, 모니터 별도)

■ 금성 컴퓨터 금성사

■ 본체 ● CPU : 120285X (16MHz) ● 기본 MEMORY : 2MB ● HDD : 40MB ● 비디오카드 : Super VGA ● 마우스 기본제공 ● 한글 MS-DOS 5.0 ● 한글입력도 3.0 ● Key Board Trainer ● 금성홈스트리트 ●

■ 가격 : 1,450,000(VAT, 모니터 별도)